

## 오륙도 글밭



배혜경

수필가·부산문인협회 회원

TV에서 이른바 호스피스 병동의 수녀님이 말한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변해가는 환자들을 지켜보는 게 일상인지라 희미한 미소를 띤 답답한 표정에 어떤 초월성이 엿보인다. 삶과 죽음도, 그 경계도 그분에게는 밤과 새벽을 가르는 미명의 순간만큼이나 자연스러워 보인다.

호스피스 병동은 병든 자들의 마지막 거처라 할 수 있다. 죽음의 선고를 거부하고 분노하던 사람들이 점차 죽음이 다가옴을 수용하고 남은 시간을 평안한 마음으로 보내려 한다.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는 것이다.

일찍이 웰빙(Well-being) 바람이 불어 웰다잉(Well-dying) 시대가 도래한지도 오

래다.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잘 죽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소망하는 것을 조심하라! 누구든 소망을 품고 살지만 욕망의 그림자에 포식되지 말라는 뜻이다. 소망이 과하면 욕망과 혼동된다. 그다지 많은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나 같은 사람도 한 가지는 있다. 나누며 사는 일을 오래도록 할 수 있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든 가지고 있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예외 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은 몸과 시간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달란트를 지닌다.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달란트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도처에 있다. 마땅한 게 없다면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 중 몇 시간을 몸을 움직여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지 않고 이루어지는 신실한 관계는 없다. 내가 가진 것들을 떠올려본다. 무엇보다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두 눈과 대어섯 시간 낭독을 해도 쉬지 않는 목소리가 있다. 눈으로 책을 읽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녹음도서로 오래도록 내 작은 달란트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몇 년 전에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튼튼

## 비록 삶은 바람과 함께 사라질지언정



한 몸을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해놓았다. 각막이식부터 장기, 피부까지 해당된다. 중증화상으로 피부 수술을 거듭해야하는 아들이 많다고 들었다. 2009년 2월에 선종 하신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으로 장기 기증자 수가 증가했다가 요즘 다시 줄어들었다. 장기가 제대로 기증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한다. 가족 동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고 뇌사자의 장기를 기

증 받는 병원이 그 지역에 있어야 하며 적절한 코디네이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의 30%가 웃도는 선진국 장기 기증 희망자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5% 미만인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되어 있다. 홍보 전략도 부족하지만 장기기증자에 대한 혜택 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 부산에만도 2000명이 넘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갑에 늘 넣어 다니는 내 신분증 아래에는 '희망의 씨앗'이라는 표시가 있다. 가족의 동의가 필수라 가족에게도 알려두었다. 가족은 죽어서도 몸의 존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면 놀라는 눈치였지만, 나는 내 몸을 그렇게 나누는 게 내 죽음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을 서약한 문우가 식사자리에서 증표를 보여준 적이 있다.

내 것과 같은 기관이었다. 좌중의 다른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돌려 보았다. 시신기증까지는 몰랐는데 이것도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좋은 일에 다 내어주고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지. 하하하...”

죽음의 문지방까지 한 번 갔다 오신 분이 유쾌하게 이 말을 하실 때, 그 표정에 담긴 기쁨의 빛이 집으로 돌아오는 발길을 내내 밝혀 주었다. 최고의 기쁨은 침묵 속에 있겠지만 좋은 것은 말해야 하고 나누어야 커진다. 매미소리 울울창창한 날에 웰다잉을 다시 생각해본다.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다.

### ■ 독자에세이

여름을 나는 두 가지 지혜



## 더위 열리는 얼음판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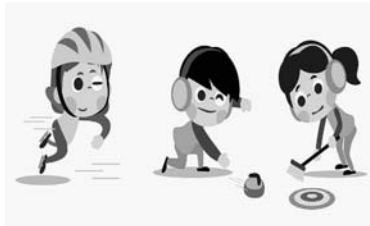
여름은 더워야 제맛이라고들 하지만 올 여름은 더위도 너무 덥다. 그러나 벌써 입추, 말복이 지났다. 더위가 제 아무리 맹위를 떨쳐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법. 곧 다칠 가을바람을 상상하며 마음이나마 청량해져 보련다.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예로부터 참 다양하게 전해 온다. 한때는 옷통을 벗어젖힌 채 등목을 하거나 나무 그늘에 거적막을 깔고 앉아 부채질로 한낮의 더위를 견디었다. 아직도 옛 방식대로 시원한 계곡을 찾아 탁욕을 해도 좋고, 수박화채를 차게 해서 꺼내 먹는 일도 즐겁다. 그러나 요즈음 대세는 뭉치 뭉치 해도 에어컨이다. 스워치만 누르고 편히 앉거나 누워 있거니와 하면 더위는 남의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나 이도 한한한 이들의 이야기는 기일 뿐이다. 아직은 선풍기가 아쉬운 곳도 많고, 일의 형편에 따라 여의치 않은 사람도 많다. 일선 소방서는 불발에도 화마와 싸워야 하고, 간식 현장은 피약발에도 진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기가 예로 부터 우리에게는 이열치열이란 피서법도 있어 왔고, 한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시원하리만 잘도 먹는 습성까지 남아 있다.

날씨가 하도 찜뭇 갈다 보니 어릴 적 더위를 식히던 방법이 아련하다. 일종의 역사지식. 한 더위에 바야흐로 추운 때를 떠올리거나 그러 보는 방식인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크다고 들었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오싹하거나 섬뜩한 느낌을 주는 내용을 남방 특적으로 자주 활용한다. 한때는 이런 피기름이나 여러물이 여름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른바 전설이 되어버린 '전설의 고랑'이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여름리는 장면이 생각났다. 바로 지난겨울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안정맞춤이었다.

때는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오후,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전이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렸다. 네 명으로 구성된 네 팀의 선



수가 번갈아 가며 27바퀴를 도는 경주에서 경기 초반 세 번째 주자(이유빈)가 바통터치 직전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1/1000 초를 다루는 경기에서 넘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끝장이다. 잠깐 사이에 다른 팀들은 무려 반 바퀴를 앞서 달리고 있었고 1만 2천여 관중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이때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된다. 곧바로 침착하게 따라오던 최민정 선수가 바통터치 후 폭발하듯 내달렸다. 우리 팀은 다른 팀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3圈的 선수를 차례차례 제쳐 나갔다. 7바퀴가 남은 상황에서 마침내 1위로 앞장서자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고 눈나라도 들쭉였다. 끝내는 2위를 멀찌감치 따돌리는 압도적인 페이스로 감동의 드라마를 썼다. 넘어지기도 1등이라니. 이게 빙판에서 가능키나 한 일이던가. 그야말로 포기 않고 잘 대처한 위기관리 능력과 세계 최강이란 실력으로 만든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뒤이어 열린 쇼트트랙 남자 1500m에 나선 임효준이 대회 첫 금메달을 따내자 온 국민은 더욱 감격해 마지않았다. 7년의 대수술을 이겨 낸 인간 승리라 감동은 배가 되었다. 그때 그 빙판과 그 실연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뭉클한 감동이 새록새록 솟는다. 겨우 6개월 전 이야기인데 어니새 가슴이 뜨겁게 느껴진다. 어렸을 때 독자들께서 이 글을 읽는 잠시 동안이나마 더위를 잊거나 열기를 식힐 수만 있다면 나의 피서 방법은 성공한 셈이다.

권채영

(수필가·남구도서관운영위원장)

## 수박과 친구, 더위야 안녕

오래 전 고등학교 때의 일이다. 당시 자취 생활을 하던 나와 친구들은 짜는 듯한 여름방학이 되면 갈 곳도 없고 피서지도 별로 없어 그저 동네에서 수박이나 싹둑 먹고 싶었다.

짜는 듯한 더위를 참다못한 한 친구가 가게에 가더니 커다란 수박 한 덩이를 사 왔다. 며칠째 수박다듬을 하던 우리들은 드디어 시원하고 싱싱한 수박을 보자 발떼처럼 주위로 몰려들었다. 나를 비롯한 몇몇 성질 급한 친구들이 빨리 쪼개라며 재촉을 했고 우리는 칼을 찾았다. 하지만 집에서 그냥 나온지라 아무에게도 칼은 없었다. 먹고 싶은 것이 눈



앞에 있는데도 먹지 못하고 보고서 침만 삼키는 우리의 심정은 말이 아니었다. “도대체 저걸 어떻게 쪼개 먹지?” 하며 모두 고민에 빠져 있는데 평소 힘이 세기로 소문난 친구 하나가 팔을 건어붙이고 나섰다.

## 군함도와 원폭 투하 그리고 장자산의 비밀



군축조약 발효에 따라 1921년 일본의 전함 도사가 나가사키 앞바다에 수장되기 위해 예인되고 있다. 일제는 도사호와 함께 폐기해야 했던 16인치 함포를 용호동 장자산 기슭으로 극비리에 옮겨 태평양전쟁 최후의 일전을 준비했다.



김성호

평성수설

우리의 광복은 일본에 떨어진 두 발의 원자폭탄이 안겨준 선물(?)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후 한민족을 포함한 인류 전체는 문명이 끝나는 그 날까지 핵의 공포에 떨어야 하는 풀 수 없는 저주에 갇혔다.

그런데 원폭 투하가 우리 남구와 역사의 실타래로 얽혀 있다면 믿으시겠는가. 이야기에 앞서 용호동 일본군 포진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 포진지는 강제징용의 상징인 군함도와도 인연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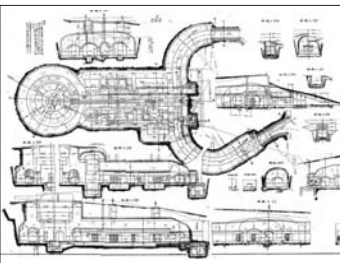
오륙도SK뷰아파트와 오륙도해맞이공원 사이 공터에는 과거 태평양전쟁을 대비한 일제의 비밀요새 장자등포대\*다. 대한해협을 건너는 연합군 항모전단을 기습 타격할 목적으로 당시 세계 최대 캐논포 두 문은 매복해 놓았다.

이 거포는 애당초 일제가 야심차게 건조한 전함 도사(土佐)에 장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일본 맹전에서 이름을 딴 도사호는 그러나 거함거포를 막기 위한 군축조약으로 건조와 동시에 나가사키 앞바다에 수장되는 운명을 맞았다. 하지만 일본 군부는 도사호에 장착하려 했던 16인치 거포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협정

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함포들을 극비리 용호동 장자산 자락에 옮겨 놓았다. 조선인 일꾼 600명을 동원, 6년 대공사 끝에 1930년 10월 포대 축조를 마무리했다. 16.1인치 함포의 포신 길이는 18.8m, 무게만 100톤이나 됐다. 최대 사정거리 40km, 포탄 한발 무게가 1.02톤에 달했다. 제대로 적중하면 항공모함도 좌침시킬 만큼 위협적이었다. 이 비밀병기는 이후 15년간 연합군의 항모전단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한편 함포도 없이 바다에 수장된 초라한 도사호를 떠올리며 일본 신문들은 “하 시마섬이 군함 도사를 닮았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이때부터 강제징용의 상징인 하 시마섬은 군함도로 불렸다.

장지등의 거포가 연합군과의 일전을 대비하던 때 태평양전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1945년 4월 12일 두 개의 전쟁을 지휘하던 미국의 4선 대통령 루즈벨트가 산책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부통령이던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이 된지 불과 82일 만이었다.

이 무렵 히틀러의 자살로 유럽에서의 전쟁은 막을 내렸지만 태평양전쟁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특히 전대미문의 자살특공대 가미카제의 등장으로 온 미국은 경악했다. 더욱이 오키나와 등지에서 목격된 일본 주민과 군인들의 기괴한 집단자살에 미군은 패닉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다. 이에 맥아



일본 아시아역사센터에 보관된 용호동 장자등포대 도면.

더 등 군수뇌부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 군인 외에 일본 국민 전부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일보상특작전인 ‘다운폴(Downfall)’을 계획한다. 미군의 모든 군사자산을 쏟아 부어 일본과의 길고 긴 싸움을 끝내는 지상 최대의 군사작전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원폭 투하로 다운폴은 실행 직전에 멈췄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일 다운폴이 가동되었더라면 어땠을까. 미군 100만명, 일본은 2,000만명 이상은 이 사망하고 전쟁은 1년 이상 장기화되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사실상 지구상에서 일본과 일본인을 없애버리는 ‘일본 멸절 작전’인 셈이다. 일제의 요새 역할을 한 부산도 결코 온전치 못했을 것이다. 특히 장지등의 거포들이 미군 함포를 향해 마침내 불을 뿜었을 터이고 남구는 세계대전의 한복판으로 몰리며 전쟁은 예측 불허인 상황으로 흘렀을지 모른다. 우리 남구가 세계의 역사와 운명을 함께 했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민원24(www.minwon.go.kr)는 1년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1588-2188



##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18. 8. 22. 기준

| 회사명           | 근무지 | 모집직종                | 모집인원 | 모집기간              | 임금조건            | 연락처       |
|---------------|-----|---------------------|------|-------------------|-----------------|-----------|
| 주식회사 디에스알     | 감만동 | 생산 품질 사무원           | 1명   | 18. 8. 21. ~채용시   | 월급 185만원 ~220만원 | ☎631-8075 |
| 주택도시보증공사      | 문현동 | 승용차 운전원             | 4명   | 18. 8. 17. ~8. 31 | 월급 200만원 ~300만원 | ☎955-5377 |
| 흥일운송          | 용당동 | 배차사무원               | 1명   | 18. 8. 21. ~채용시   | 연봉 3000만원       | ☎621-4677 |
| 한누리어린이집       | 대연동 | 누리과정 보조선생님 (시간제/오후) | 1명   | 18. 8. 21. ~채용시   | 월급 83만원         | ☎635-3064 |
| 케이와이티 종합건설(주) | 대연동 | 건축시공기술자             | 1명   | 18. 8. 21. ~채용시   | 월급 250만원        | ☎628-8402 |
| 생희반점          | 감만동 | 주방보조원               | 1명   | 18. 8. 21. ~9. 04 | 월급 200만원        | ☎646-4007 |
| 대연성모병원        | 대연동 | 간호조무사               | 1명   | 18. 8. 20. ~9. 14 | 월급 160만원        | ☎621-2311 |
| 현대블루윈즈 대연점    | 대연동 | 자동차 정비원             | 1명   | 18. 8. 20. ~9. 30 | 월급 213만원        | ☎757-0034 |
| 부산대연음식나라조식점   | 대연동 | 요리감사                | 2명   | 18. 8. 21. ~채용시   | 월급 170만원        | ☎628-6464 |
| (주) 지건축디자인    | 문현동 | 인테리어 디자이너           | 1명   | 18. 8. 21. ~채용시   | 월급 200만원        | ☎465-5045 |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 ~8 Fax. 607-4349

### 산행이 물 따라

## 산행을 떠나요

(2018. 9.)

| 구분  | 산악회                            | 산행일자(요일) | 산행장소     | 연락처           |
|-----|--------------------------------|----------|----------|---------------|
| 대연동 | 대삼산악회                          | 9/2(일)   | 광양 백운산   | 010-6252-5641 |
|     | 백호산악회                          | 9/12(수)  | 거창 수송대   | 010-5621-4007 |
|     | 연포산악회                          | 9/9(일)   | 장성 백암산   | 010-3832-5971 |
|     | 금강산악회                          | 9/2(일)   | 지리산 거름굴  | 010-3865-9051 |
| 용호동 | 용신산악회                          | 9/9(일)   | 영덕 블루로드  | 010-4657-7051 |
|     | 청산산악회                          | 9/2(일)   | 상주 형계산   | 010-8008-2087 |
|     | 해월산악회                          | 9/16(일)  | 밀양 구만산   | 010-7154-3166 |
|     | 여남산악회                          | 9/9(일)   | 여수 하와이   | 010-3855-6569 |
| 용당동 | 여명산악회                          | 9/2(일)   | 광양 백운산   | 010-2582-4254 |
|     | 산오름회산악회                        | 9/2(일)   | 울진 왕피천   | 010-7223-2277 |
|     | 21세기산악회                        | 9/9(일)   | 봉화 백전계곡  | 010-7563-1943 |
|     | 문화산악회                          | 9/30(일)  | 통영 연대만지도 | 010-3866-7850 |
| 감만동 | 용마산악회                          | 9/9(일)   | 포항 내연산   | 010-2692-1170 |
|     | 오슬길산악회                         | 9/16(일)  | 문경 국사봉   | 010-8287-1192 |
|     | 유일산악회                          | 9/2(일)   | 여수 향일암   | 010-3595-5848 |
|     | 문현2동산악회                        | 9/9(일)   | 통영 사량도   | 010-2902-8322 |
| 문현동 | 월부리산악회                         | 9/16(일)  | 서울 북한산   | 010-4564-7769 |
|     | 산누리산악회                         | 9/2(일)   | 울릉도      | 010-4035-3432 |
|     | 문사산악회                          | 9/9(일)   | 철성계곡     | 010-8466-8662 |
|     |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성환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모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바람>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정별(대연동 주민)